

어가 소득 사상 최초 5천만원 돌파

전국 제1수산도 전남, 전체 소득 증가 견인 도내 2천413어가 연간 1억이상 고소득 기록

전국 제1수산도인 전남지역 어가 소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전국 평균 어가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어가 평균소득이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천만원을 넘어섰다.

연도별 평균 어가 소득은 2013년 3천859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 4천101만원, 2015년 4천389만원, 2016년 4천708만원, 2017년 4천902만원, 2018년 5천184만원이다. 다만 어가당 평균 자산은 4억3천427만원으로 전년(4억3천723만원)보다 0.7% 줄었다.

어가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종류별 비중은 어업 소득이 49.5%, 제조업, 도소매

업 등 어업의 소득이 26.1%, 보조금,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이전 소득이 19.7%, 비경상 소득이 4.7% 순이었다.

어업 형태 별로는 양식어가의 어가 소득이 7천941만원으로 어로 어가의 4천172만원에 비해 1.9배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식 어가는 2.5% 증가했고, 어로 어가는 7.8%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어류 소비 감소 및 패류

양식환경 악화(태풍 고·저수온)로 양식 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다소 줄고 여황 여건 양호로 어획량이 크게 늘어 연근해 어업 생산량과 생산액이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연령 별로는 40대 이하 경영주의 어가 소득이 1억35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가 자산은 50대 경영주가 5억7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 어가 소득을

전년과 비교하면 5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56%, 생산액의 38%를 차지해 전국 어가 평균 소득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 고소득 어업인 조사에서 도내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는 2천413어가로 전체 어가의 13%에 달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이 전국 어가소득 증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스마트 양식기반 산업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수산물 고차가공으로 수산식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어업인 소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콜롬비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현지시간)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인 콜롬비아를 방문, 보고타 힐튼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총리가 참전용사인 기레르모 장교(화전원쪽)와 에피타요 로드리게스 사령관(왼쪽)의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道, 도로 사업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발주 전 편입용지 先보상 공사기간 2년 앞당기기로

전남도가 지방도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공사 발주 전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100% 완료된 곳을 우선 추진하는 '도로사업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7개 군의 도로탐과 보상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연전을 지난 3일 갖고 지방도 정비사업 편입용지 선(先)보상 추진 방침을 전달했다. 실시절차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100% 동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사업을 시작한 후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사업 장기화, 주민 간 갈등 유발, 예산 집행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보상과 공사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상

협약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른 선(先)보상 착수지구는 '고흥 안남-송림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3개 지구 42.5km다. 총 사업비는 2천457억원 규모다.

편입용지 선(先)보상과 별도로 전남도는 공사 발주 전 필요한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동시에 이행해 사업 착공 속도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할 경우 기존에 7년 이상 소요됐던 도로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사업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선 예산 수반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도 정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올해 본 예산 830억 원 외에 지난 4월 추경예산

에 27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도로사업의 5년 이내 완료를 위해 매년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상 착수 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협의를 빠르게 진행, 보상 첫 해에 9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완공 사업에 집중 투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전국의 63%에 해당하는 2천여 크고 작은 섬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105개소 113.5km의 해상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53개소 40.3km는 완료됐다. 영광-해제 등 12개소 16.6km는 추진 중이며, 화원-암해 등 40개소 56.6km는 5조8천억원을 투입해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사업의 패스트트랙방식 적용으로 전남 SOC 완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오늘 제39주년 5·18기념행사 보고회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39주년을 앞두고 7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5·18기념행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다.

광주시와 5·18기념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보고회에는 이용섭 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5·18행사위원회 김후식 공동상임행사위원장, 김상근·김재규 공동행사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보고회는 제39주년 5·18기념행사의 기초 및 방향과 그동안 준비해온 기념행사 진행사항 등을 광주시민 및 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5·18행사위원회는 현재 ▲5·18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옛 전남도청 복원 등 오월현안을 담아내 사회적 공감대 확산 ▲

5·18기념행사 전국화 추진과 규모 있는 시민참여 기념행사 진행과 확대 ▲'오월에서 통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민중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기념행사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예비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강화 등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담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기획·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 준비에 김상근·김재규 공동행사위원장 등 우리

나라 민주화운동의 대부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5·18기념행사의 성공과 전국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근·김재규 공동행사위원장은 민주·인권분야의 명망있는 전국적인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 김상근 목사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김재규 위원장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다. /최권범기자

“지역 현안 해결 힘 모으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상생발전 연찬회 개최

광주시는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상생발전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동지를 둔 16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광주·전남도, 광주 남구·광산구, 나주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정주여건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다양한 혁신도시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참여 기관·단체들은 서로 하나 되는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지역 발전계획에 지역 현안사업이 적극 반영 되도록 하고 매년 개최되는 대학생 공공기관 탐방에 대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 빛가람 축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매년 상생발전 연찬회를 개최하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들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왔다.

더불어 남도문화탐방, 혁신도시 연구 기획 전담조직(TF) 운영, 광주생활안 내서 배부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다양한 교류와 상생을 위한 행보를 해왔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삼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역 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역시도 4년 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가 향후 4년간 복지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담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사회보장정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광역단체는 4년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은 계획 수립 지연으로 이달 중 제출 예정이다.

16개 광역시도는 중앙정부 주도 보편사업(국고보조사업)이 아닌 각 단계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계획을 마련했다. 제출된 계획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시민', '삶', '행복', '복지', '복지공동체' 등이었다. 추진전략이 가장 많이 수립된 영역은 돌봄(21.1%)이었으며, 고용(13.3%), 건강(7.8%), 주거·전달체계·교육(각 6.7%)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시령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령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 공증 · 공사대금 · 각서 · 운송료 차용증 · 거래장부 · 계약서 · 통장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없음 ◀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부동산, 전세금, 신용, 주거대출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영업직 신입 · 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경력직 모집

*업계 최고대우함

선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 개인 ·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 T/M직원 모집 ● 남 · 여 직원모집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062-228-0990~1/HP 010-5679-0990
백운동·조대방면으로 남광주농협 인근신협3층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 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합니다.

라누리 콜센터 1577-1366 광주센터